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25

동아는 지금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동아대학교,
그리고 동아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25번째 소식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승학캠퍼스 정문 옆, 학교로 이어진 길이다.
담벼락 너머로 우거진 수풀은 캠퍼스를 오르내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계절마다 다른 빛깔, 다른 모양의 자연을 선사한다.
8월, 짙은 녹음으로 칠해진 여름의 색은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해 줄 것만 같다.

동아는 지금

DONG-A UNIVERSITY NEWSLETTER

2025 VOL. 125



04

ISSUE FOCUS

- 04 동아는 지금 지역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에 ON!
- 06 29년 결실의 순간 간호학과, 간호대학으로 거듭나다



28

ESSAY

- 28 2025 석당박물관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08

HOT NEWS

- 08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라이즈) 사업 선정
- 09 글로벌대학30 산학협력 고도화 본격 나서
- 10 글로벌대학30 성과확산 및 소통 행사 활발
글로벌대학30 'B-헤리티지' 분야 학술교류 추진
- 11 EU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최종 선정
'글로벌첨단융합공학부' 신설
- 12 승학캠퍼스 청춘홀 리모델링 개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초청 강연 개최
- 13 동아의 영향력, 세계로 뻗어나가다
- 14 영남권 최대 규모 부동산대학원 신설
- 15 동아대 교수들 각종 연구지원 사업 선정과 수상
- 16 동아대 교수들 및 대학원생 연구성과 발표와 성과
- 17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구 및 대외활동 두각
- 18 캠퍼스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 19 씨름부,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
야구부 이재현 감독, 지도자 부문 수상
- 20 동아대 야구부, '꽃밭야구'에서 열정 터뜨리다
- 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다큐멘터리 제작
'베이스볼 하모니' 2025년 에미상 노미네이트



22

DONG-A PEOPLE

- 22 경기장에서 캠퍼스로, 챔피언의 귀환
태권도학과 이대훈 교수
- 24 우연한 기회로, 경계를 넓히다
박혁세무회계사무소(로앤텍스 법률사무소)
박혁 대표
- 26 매일(DAILY) 만나는 더 큰 세상
국제교류과 제8기 데일리 서포터즈



32

HAPPY DONATION

- 32 발전기금 기부뉴스
- 39 발전기금 기부현황 / 후원의 집 소개
- 42 DONG-A V-log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25호)

발행일 2025년 9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인 디자인대훈 051)898-0330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재홍)

동아는 지금 지역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에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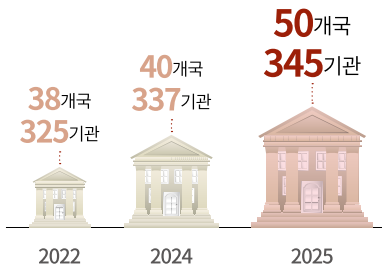
동아대는 국제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 구성원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동아대 외국인 유학생은 총 50개국 2,106명으로 크게 늘었고, 한국어학당은 전국 대학 중 여섯 번째로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대학30 선정 이후엔 세계 유수의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정을 이어가며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확장, '글로벌 아시아 거점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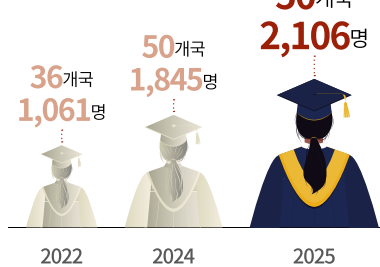
동아대와 태국 치앙마이대 관계자

국제교류 현황

해외교류대학



외국인 유학생



국제화 지수와 교육 경쟁력을 함께 높인다 글로벌 JA (Joint Appointment) 교원 제도

‘글로벌 JA 교원’ 제도는 동아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국내 대학이 세계 우수 대학 석학을 공동으로 임용해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동아대 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캠퍼스에서 석학들의 글로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해외 유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글로벌 인맥 형성과 국제적 시각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아대는 ‘에너지테크’, ‘휴먼메타케어’, ‘문화콘텐츠’, ‘B-헤리티지’ 등 4대 특화 분야 관련 해외 석학을 꾸준히 글로벌 JA 교원으로 초빙할 계획이다.



글로벌 JA 교원으로 임용된 법의학자 치앙마이대 풍록 총장과 임상연구전문가 프라판 교수, 서명식 참석자들

지역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다 글로벌 인재 양성 본격화

BEYOND THE REGION, LEAD THE WORLD



태국
THAILAND

1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태국의 3대 대학 중 하나로 태국 북부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치앙마이대 풍록 총장(법의학자)과 프라판 교수(임상연구전문가)를 ‘글로벌 JA 교원’으로 임용, 국내 학생들이 해외 유학 없이도 해외전문가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프라판 교수는 글로벌 임상 노하우를 수십 년간 축적한 임상시험수탁회사(CRO) C&R Healthcare Global Thailand 대표로서, 학생들에게 휴먼메타케어 분야 전문지식을 직접 전수하게 된다.



중국
CHINA

2 아시아 스포츠 인재 양성

미래 스포츠 인재 양성의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해 중국 상해체육대학과 학술자료 및 정보 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학생과 교직원 교류 등 국경을 초월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상해체육대학은 중국 최초의 체육대학으로 스포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11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스포츠의학과 재활, 반도핑(Anti Doping) 관련 석·박사 학위 과정에 강점이 있으며, 글로벌 스포츠계 핵심 기관들과 교류 협력도 추진 중이다.



미국
USA

3 인재 다양성 확보

외국인 유학생 국적 다양화와 하와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영어트랙 확대 운영 및 다양한 맞춤형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와이 소재 고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와 입학설명회를 통해 학부 영어트랙과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동아대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또 미국 학생 비자(i-20) 발급이 가능한 영어교육 전문 기관인 IMPAC (International Mid Pac College, 대표 조관제 동문)과 상호협정도 체결했다.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다 대학원 국제화 프로그램 활성화

동아대는 4단계 두뇌한국(BK)21 ‘대학원 혁신’ 사업 선정으로 ‘대학원 국제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국제 의식을 높이고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국 호북성 무산 소재 지역 대학을 대학원생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중국 내 법학계 열 대학 중 가장 큰 규모인 서남정법대학과 학부 중심이었던 국제교류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서남정법대학 대학원을 비롯, 서남대학 대학원, 화중농업대학 대학원 및 호북공업대학과 교환학생, 국제공동연구, 공동 지도교수제 등을 추진한다.

동아대는 구성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대학, 동아대학교의 미래를 기대한다.



중국 서남정법대학 대학원생 및 직원 방문

29년 결실의 순간 간호학과, 간호대학으로 거듭나다

서른 명의 입학생으로 출발한 동아대학교 간호학과가 올해부터 단과대학인 '간호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했다. 이번 승격은 지난 29년간 이어온 간호 교육의 성장을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교육 방향을 주도해 갈 출발점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뜻깊은 순간을 함께 기념하고자 한다.



간호대학 간호학과 연혁 및 역사

- 1995. 10. 의과대학 간호학과 설립 인가
- 1996. 3. 의과대학 간호학과 신설 제1회 신입생 30명 입학
- 2002. 3. 입학정원 50명으로 증원
- 2008. 3. 입학정원 60명으로 증원
- 2010. 3. 입학정원 70명으로 증원
- 2012. 3. 입학정원 80명으로 증원
- 2019. 3. 독립학부인 간호학부 간호학과로 승격 입학정원 100명으로 증원
- 2022. 3. 입학정원 105명으로 증원
- 2022. 7. 보건복지부 「2022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국비 6억 지원)
- 2022. 10. 간호시뮬레이션센터 개소
- 2023. 1. PIVOT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 2024. 3. 입학정원 115명으로 증원
- 2025. 3. 간호대학 간호학과로 승격 입학정원 120명으로 증원



힘찬 박수 속 역사적인 출발

간호대학 출범

1996년, 이제 막 스무 살을 넘긴 앳된 얼굴들이 처음 간호라는 길 위에 발을 디뎠다. 서로의 뒷모습을 보며 실습실을 오갔고, 밤을 새워 시험공부를 하며 때론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던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지나온 29년의 세월 동안 누군가는 동문이 됐고, 누군가는 먼저 걸어간 길 위에서 후배들을 기다리는 선배가 됐다.

정원 30명의 소규모로 출발한 간호학과는 꾸준한 성장 끝에 현재는 매년 1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과로 자리 잡았다. 올해 단과대학으로 승격되면서, 간호 교육의 체계와 위상 역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됐고, 이는 동아대가 지향해 온 실무 중심의 간호 교육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자리에 본부 보직자와 강지연 간호대학장을 비롯한 교수진, 동아대병원 관계자, 졸업동문회, 학부모, 재학생 등 350여 명이 함께했다. 모두가 박수로 응답하며 간호학과가 단과대학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 기념했다.



간호대학 발전기금 전달식



제5회 혜원장학금 수여식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첫걸음

간호대학 승격 기념 발전기금 조성

이날 행사에선 간호대학 교수진 3,000만 원, 간호학과 졸업동문회 5,000만 원, 중환자전문간호학과정 졸업생 2,4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의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제자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한 진심이 한 곳에 어우러져 마련됐다.

제1회 전문간호사 장학금 수여식에선 간호학과 재학생 2명이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번 승격을 계기로 실습과 연구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호대학 교수진 **3,000**만 원
 간호학과 졸업동문회 **5,000**만 원
 중환자전문간호학과정 졸업생 일동 **2,400**만 원

의롭게 살겠다는 우리들의 다짐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학과에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 선서식에서 예비 간호인들은 나이팅게일의 간호 정신을 담고 있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간호 메달을 받는다. 간호사로서 갖춰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전문 간호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2025년 제28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선 손채희 학생을 포함한 3학년 재학생 109명이 간호 메달을 받고 선서문을 낭독했다. ‘일생을 의롭게 살며, 간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처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선언문 속에는 생명 앞에서의 태도와 이에 대한 책임이 담겨 있었다. 지금의 다짐이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이어져, 언젠가 세계 곳곳에서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간호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1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라이즈) 사업 선정

동아대가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선정, 올해 179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RISE(라이즈) 사업'은 기존 5대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인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지방대 활성화사업',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 교육)' 사업을 지역발전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부산에 교부된 총 1,300억 원 중 동아대는 '연구중심형 대학' 유형으로 17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RISE 사업 수행으로 '대학의 벽을 허무는 클러스터 기반 Practical Researcher 양성 대학'이라는 비전을 수립한 동아대는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및 기술혁신으로 지역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3개 대학원 융합전공을 신설, 학·석사 연계형으로 구축해 실무역량과 연구역량을 겸비한 '전문연구자 Career 로드맵'을 설계함으로써 기업 참여 교육모델로 지역 내 정주형 고급인재 양성 체계를



승학캠퍼스 전경

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동아대 특화 분야인 이차전지 및 수소 분야 에너지 테크를 혁신, 지역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강한 협력 체계를 대표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동아대는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학협력 모델 구축으로 특성화 분야 우수 연구인재 양성, 기업 공동연구 활성화, 대학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책임을 맡은 최정호(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동아대는 부산시가 제시하는 'Open-UIC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대학과 지역산업,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 지역 이차전지, 에너지테크, 바이오 헬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인재 양성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더욱 매진해 지역 정주 기회를 확대하고 부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중심형 대학』 유형



179억
4,000만원

RISE 사업 추진단, 2025 Trend Watching 글로벌 창업캠프 개최



'2025 Trend Watching 글로벌 창업캠프'에 참가한 한일 대학생들



'2025 Trend Watching 글로벌 창업캠프'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받은 동아대 학생들

RISE 사업 추진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2025 Trend Watching 글로벌 창업캠프'를 개최했다.

RISE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 지역 대학 간 공유협력 기반의 공동 혁신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SI 기반 창업 마케팅 교과목'을 운영 중인 동아대와 동서대, 동의대, 일본 메이오대 재학생들이 참가, 글로벌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 참가자들은 일본 현지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으며, 동아대 A팀(국제무역학과 권예지·전기공학과 정상명·태권도학과 이준서·시학과 김재원)이 대상을, B팀(전기공학과 김민준·정유석·태권도학과 호강민·조민수)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동아대 RISE 사업 추진단은 앞으로도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글로벌연합대학 '통합산단 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



동아대·동서대 산학협력단 '글로벌대학30 지속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 1차년도 성과보고회' 참석자들



동아대와 부산산학융합원이 공동 주최한 '지산학 생태계 조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술 세미나' 참석자들



'지산학협력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참석자들



'디스플레이 분야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포럼' 참가자들

2 글로벌대학30 산학협력 고도화 본격 나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며 산학협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활발해지고 있다.

동아대·동서대 연합대학은 '글로벌대학30' 사업 핵심과제로 '수익형 통합산학협력단 기반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 대학은 지난해 12월 1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발족식을 갖고 통합산단 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어 동아대·동서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월 10일, 두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산학협력 유관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30 지속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 1차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글로벌대학30 사업 핵심과제로 '수익형 통합산학협력단 기반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설립 예정인 통합산단은 사업화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연합대학 중심의 실질적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월 30일 '지산학 생태계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및 기술 세미나'를 통해 부산 사하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과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실천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기반의 산업 수요 연계형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했다. 동아대는 앞으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진행으로 체결된 협약 및 수요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산학연 연계형 커리큘럼 개발, 인턴십 및 실무 프로젝트 확대, 동아·동서 통합산단의 성공적인 운영에 핵심이 될 브랜치 네트워크 거점 확보 등을 추진한다.

지난 7월 4일 열린 '디스플레이 분야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포럼' 역시 동아대의 산학협력 고도화 행보 중 하나다. 동아대는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핵심인 수익형 통합 산단 설립 목표와 더불어 산학협력 매출 증대를 위해 기존 3대 특화 분야(에너지테크·휴먼케어·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신규 특화 분야(디스플레이)를 발굴, 관련 분야 지산학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했다. 동아대 이기동(전자공학과)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디스플레이소자융합기술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제1회 산학연협력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기술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로 4회째 포럼을 주관하고 있다.

3 글로컬대학30

성과확산 및 소통 위한 각종 행사 활발



‘글로벌 연합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



글로벌 연합대학 ‘제2차 정책네트워크 회의’



글로벌 연합대학 ‘BIG(Busan Innovative Global) 네트워크’ 킷오프회의 참석자들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가 연이어 마련됐다.

지난 4월 14일엔 동아대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연합대학 성과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성과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 두 대학은 대학-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해 추진과제별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4월 10일에는 ‘글로벌 연합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 황기식 연합대학 전략기획실장(동아대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참석 위원들이 1차년도 추진과제 성과 평가 및 차기년도 발전방향 제시 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7월 동아대-동서대 글로벌 연합대학은 제1차 정책네트워크 회의

를 진행, ‘글로벌 연합대학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학생 요구 분석’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4일에 ‘제2차 정책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연합전공’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안건이 논의됐다.

2월 11일에는 ‘BIG(Busan Innovative Global) 네트워크’ 킷오프회도 부산 송도 원뎀그랜드 마레홀에서 개최했다. 동아대-동서대 연합대학 ‘BIG 네트워크’는 연합대학과 부산시가 함께 지향하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주지원 사업을 위한 지식학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체로, 동아대와 동서대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학협력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4 글로컬대학30

‘B-헤리티지’ 분야 학술교류 추진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한 축인 ‘B-헤리티지’ 분야 학술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

동아대는 5월 9일 글로벌 연합대학인 동서대와 함께 지역 대표 문화유산 기관인 범어사 성보박물관·부산문화재단·부산박물관·부산근현대역사관과 ‘글로벌대학30 B-헤리티지 학술교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부산시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동아대와 동서대, 지역 문화유산 4개 기관은 ‘글로벌대학30 B-헤리티지’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B-헤리티지 조사·연구·활용·협력 등 학술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B-헤리티지 관련 필드 인턴십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아울러 동아대는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역 산업유산 보존 및 활용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부산과 대구 일원에서 ‘부산-대만 산업유산 학술교류: B-헤리티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타이베이과학기술대학교(台北科技大學), 중원대학교(中原大學), 대만박물관 문화교육재단(財團法人臺灣博物館文教基金會) 등 대만의 대표적인 건축·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참가해 깊이 있는 학술적 논의를 이끌었다.



왼쪽부터 오재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범어사 주지 정오스님(성보박물관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장재국 동서대 총장, 정은우 부산박물관장, 김기용 부산근현대역사관장



5월 23일 부안캠퍼스에서 개최된 ‘부산-대만 산업유산 학술교류: B-헤리티지’ 세미나 참석자들

5 EU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최종 선정

동아대가 유럽연합(EU)의 최대 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청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CETPartnership)의 공동연구 과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다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 과제다. 국내 대학이 주도해 EU 호라이즌 유럽 다자간 연구과제에 정식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 눈길을 끈다.

동아대는 덴마크 남덴마크대학(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SDU)이 총괄 주관하는 ‘EnergyBuilder(에너지빌더)’ 프로젝트의 한국 측 주관기관으로 참여, 전체 워크패키지 중 핵심 워크패키지(WP1;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빌딩 생애주기 디지털화) 책임 기관으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개발된 기술은 한국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빌리지’를 포함해 유럽 3개국의 ‘리빙랩(Living Lab)’에서 실증될 예정이며, 실증 결과는 앞으로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트윈 및 AI 기반 에너지 관리 원천 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화’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인 이석환(소프트웨어대학장) 교수는 “호라이즌 유럽 과제 선정은 동아대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센터가 보유한 AI와 디지털트윈 분야 연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CETP 과제에 활용될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 및 스마트빌리지



CETP 과제에 활용될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 및 스마트빌리지 시뮬레이션 - Day/Night 일조량, RDF 온톨로지 기반 AirMonitor 실내 온도 지식화, 건물 메타데이터 추론

6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지역혁신 선도 ‘글로벌첨단융합공학부’ 신설

동아대가 공학 분야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글로벌 실용적 공학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및 지역 정주를 도와 지역혁신을 선도한다.

‘글로벌첨단융합공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실용 공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인 학생 전용 학과로 개설된다.

교과과정은 한국어와 기초 교양, 전공 탐색 특강 및 세미나, AI 기반 공학교육,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엄격한 학사 및 학생 관리 체계를 통해 인턴십과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 취업·정주 조건을 갖춘 검증된 고급 외국인 인재를 양성, 전문 엔지니어 인력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대 공과대학 교수들은 신입생 모집 홍보 세미나와 상담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네팔(카트만두),

방글라데시(다카),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연이어 방문했으며, 9월에는 스리랑카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정재 동아대 공과대학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에너지, 화학·신소재, 기계·조선해양, AI 분야 다학제 전공 교수진을 갖춘 동아대가 AI 및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를 유치해 교육과 취업, 정주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대는 이번 학부 신설을 통해 노동 인력 감소에 따른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애로기술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 부산형 RISE(라이즈) 사업과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과대학 교수들이 네팔 카트만두에서 진행한 ‘글로벌첨단 융합공학부’ 입시 홍보 활동 모습

7 승학캠퍼스 청춘홀 리모델링 개관

동아대는 승학캠퍼스 인문과학대학 1층 ‘청춘홀’을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청춘홀은 동아대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인 청춘장학재단을 운영 중인 DN오토모티브가 시설 개보수 경비를 지원해 지난 2007년 조성됐으며, 이번 리모델링은 김상헌 DN오토모티브 회장의 발전기금 6억 원과 동아대 교비로 이뤄졌다. 지난 4월 11일 열린 개관식엔 이해우 총장과 청춘장학재단 최학유 상임이사, DN오토모티브 유시균 경영지원본부장, 청춘장학재단 최재룡 이사·최규환 이사·정원재 사무국장·

황지현 감사 등이 참석했다. 리모델링으로 청춘홀은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음향·조명·전열교환기·단열재·외장재를 비롯해 LED 전광판, 전자교탁, 방송 장비, 좌석(194석) 등 모든 부분에서 최신 시설로 거듭났다.

이해우 총장은 “훨씬 쾌적해지고 좋은 시설이 갖춰진 청춘홀에서 학생 행사나 외부 초청인사 특별강연 등이 이뤄지게 됐다”며 “늘 학교에 아낌없는 애정을 주고 계신 청춘장학재단과 김상헌 DN오토모티브 회장님께 크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학유(동아대 명예교수) 청

춘장학재단 상임이사는 “방음도 환경도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좋아진 것 같다. 학교 측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로비에 조성된 휴게공간에서 학생들이 가득 앉아 청춘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니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춘장학재단은 故 김만수(동아대 건축도목과 1956년 졸업) 회장의 아호를 따 지난 1995년 설립됐으며, 김 회장 작고 이후 아들인 김상헌 회장이 이사장에 취임해 고인의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해우 총장과 최학유 청춘장학재단 상임이사 등 ‘청춘홀 리모델링 개관식’ 참석자들



리모델링된 청춘홀 내부와 로비 모습

8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초청 강연 개최

동아대는 지난 5월 27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승학캠퍼스 청춘홀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청년과 함께 묻고, 함께 걷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주제로 동아대 학생들에게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청년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아대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외 현상이 심각해진 대한민국 현주소를 진단하고,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해소할 방안으로 ‘복수의 혁신거점을 통한 혁신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혁신의 인프라, 혁신의 산업, 혁신의 인재 집적의 필요성’을 역

설하며 “혁신거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부산이고 혁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앵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대한민국 혁신의 시작”이라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부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다. 그 소명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강연이 끝난 후 뉴턴공원으로 이동해 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부산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은 동아대 교수, 제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비서관,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제38대에 이어 제39대 부산광역시장으로 당선돼 부산시 발전을 이끌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동아대 청춘홀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 초청 강연 모습



이해우 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앞줄 가운데), 참여 학생들

9 동아의 영향력, 세계로 뻗어나가다

글로벌 동아의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동아대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26~2028년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산학협력(UIC) 수확대학’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이공계 분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초청 글로벌 장학생 유치 프로그램으로 동아대는 전국 T/O 100명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명을 확보했다.

동아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5 K-Move스쿨 미국 글로벌 전문가 해외취업사업’에도 선정됐다. 상반기 4개 과정, 하반기 4개 과정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관인 동아대는 전국 최대 규모인 100명을 모집해 해외취업 교육과정에 나서게 된다.

지난 4월 7일에는 태국 치앙마이대학교(Chiang Mai University) 총장단인 방문, 두 대학의 실질적인 학술교류와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JA 교원 합의를 서명식’을 진행했다.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현지 고등학교인 Kalani High School 관계자들과 간담회 및 입학설명회를 진행, 학부 영어트랙과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동아대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동아대 GKS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기념촬영



동아대 ‘K-Move스쿨 미국 글로벌 전문가 해외취업과정’ 18기 취업캠프 참가자들



동아대와 태국 치앙마이대 ‘글로벌 JA 교원 서명식’ 참석자들



하와이 현지에서 진행된 동아대 입학설명회 참석자들



동아대와 중국 상해체육대학 교류 협정 체결식 참석자들

또 7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해체육대학과 유학생 교류 및 학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우호 교류협정(MOU)을 맺어 미래



동아대와 베트남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식 참석자들

스포츠 인재 양성의 글로벌 허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중국 산동성의 대표 공립 직업교육기관이자 직업교육의 선진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제녕직업기술대학과 우호 교류협정(MOU)을 체결하고 학술자료 및 정보 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학생 및 교직원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생 1만 6,000여 명을 보유한 베트남 국립대학 산하의 명문 국립대학인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과도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고 학술자료 및 정보 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학생 및 교직원 상호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

대학원 및 단과대학 차원 국제교류 활발

동아대 교육대학원 관계자들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일본 교토대학교 교토 시립 호리카와고등학교를 방문해 예비교사의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 현지에서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학과 교수진, 현직 교사, 교육대학원생, 학부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형식으로 운영돼 교육적 의미를 더했다.

또 동아대 사회과학대학은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과 ‘한-중 인문사회 발전 및 비교’를 주제로 2025년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두 대학은 지난 2000년 학술교류협정 체결 이후 해마다 번갈아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연구 분야의 동북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DAU HOT NEWS



교육대학원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자들



동아대 사회과학대학과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 학술대회 참석자들



동아대 부민캠퍼스 전경



동아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및 부동산대학원(석사과정 및 정비사업리더 최고과정) 입학식 참석자들

10 영남권 최대 규모 부동산대학원 신설

동아대가 영남권 최대 규모의 부동산대학원을 신설, '전문화·고급화된 부동산 실무교육의 새로운 명문대학교'로 도약한다.

동아대는 부동산 투자, 개발 및 자산경영 등 전문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지역사회 부동산 교육을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수대학원 형태로 '부동산대학원'을 신설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부동산대학원 제1기 '부동산학 석사과정'과 '정비사업리더 최고과정' 2025학년도 첫 신입생을 모집, 3월 19일 2025학년도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과 부동산대학원(원장 강정규) '석사과정' 및 '정비사업리더 최고과정' 신입생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현재 동아대는 '전문화·고급화된 부동산 실무교육의 새로운 명문대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정비사업리더 최고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학습자 대상 4년제 대학교 학위과정인 '부동산투자개발학과'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은 부동산학 석사과정으로 영남권 최대 규모로 '부동산투자전공', '부동산개발·건설전공', '부동산자산관리전공' 등 3개 전공에 50명 정원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으로 입학 선발, 2025년 3월부터 2년 4학기제로 매주 화·수요일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야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인 강정규 교수가 모든 부동산 교육과정을 지도하며 함께 수업하고 임장활동까지 진행한다.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인 동아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

석사과정과 함께 운영 중인 '정비사업리더 최고과정'은 최근 급변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최고의 실무재테크과정으로, 정비사업 관련 리더들이 조합장, 추진위원장 및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체 대표 등과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한다.

한편 5월 9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성석동강의실'에서 '부울경 건설주택발전연구회-동아대 부동산학 교육과정 창립 포럼 및 산학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학계와 지역 건설주택사업자들이 지역 부동산시장 위기를 돌파를 위한 해법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 연구와 지역 건설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 특화 부동산 및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개발, 현장 실습 및 공동 답사,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토대로 정부 정책 제언과 새로운 산업 발전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동아대 이해우(오른쪽) 총장과 성석동 부울경 건설주택발전연구회장



부울경 건설주택발전연구회-동아대 부동산학 교육과정 창립 포럼 및 산학협약식 참석자들

11

동아대 교수들 각종 연구지원 사업 선정



옥수열 교수



김두현 교수



권영성 교수



주나안 교수



손민국 교수



박준용 교수

동아대 교수들이 정부의 각종 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과 옥수열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콜럼버스 프로젝트’ 재난안전 분야 연구 책임을 맡는다. 이번 사업으로 동아대는 오는 2032년까지 8년간 34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투입, ‘복합재난 신속 예측 및 연속적인 재난 예방을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스마트그린자원학과 김두현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첨단 정밀육종활용 고부가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 ‘채소 종자의 재배 안정성 증진을 위한 기능성 프라이밍 신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를 수행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영성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2025년도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권 교수는 ‘XR 기술 기반 뇌졸중 재활치료 콘텐츠 개발 및 신경생리학적 효과 검증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앞으로 2년간 총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패션디자인학과 주나안 교수도 한국연구재단 ‘2025년도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주 교수는 기술적 혁신을 넘어 감정 회복과 긍정적 정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리테일 테라피’의 가능성을 학문적·실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손민국·박준용 교수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의 ‘글로벌 의과학자 양성(의과학자 박사후 연구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두 교수 연구팀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7년 12월까지 총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류마티스 희귀질환 대상 실사용데이터 및 합성데이터 기반의 임상시험 모사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연구’를 수행한다.

동아대는 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 새싹 사업’ 경상권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은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으로, 동아대 부민캠퍼스 및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세역(행정학과, 인공지능정부연구소장) 교수가 사업 책임자(PM)로 활동한다.

12

동아대 교수들 수상으로 학교 빛내

동아대 교수들이 우수한 연구성과로 잇따라 수상하며 학교 이름을 빛냈다.

건축학과 성이용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2025년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 교수는 지난 2024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KIEAE Journal’에 발표한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바이오소재공학과 오주성 교수는 ‘제21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현장에서 도시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다. 오 교수는 부산도시농업 학술 분야 위원장을 맡아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이루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농업 및 텃밭 활동 체험교육 지도에 헌신하는 활동을 펼쳐 학계를 대표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영정보학과 류민호 교수팀은 ‘2025년 한국산업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딥러닝 기반 힌다리새우 성장단계 추론을 통한 급이량 및 출하



성이용(오른쪽) 교수 수상 기념촬영



오주성 교수



최만철 교수

시기 최적화 모델 개발’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류 교수팀은 기존의 딥러닝 기반 새우 이미지 분석에서 예측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변수 설정으로 모델의 정확성과 견고성을 높였으며, 앞으로 데이터 수집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만철 경영학과 교수는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5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원산지 국가이미지에 따른 지각된 유용성과 가격평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외대 이영일 교수·종미옥 석사과정생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13 동아대 교수들 세계적 연구성과 발표

동아대 교수들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 해 눈길을 끌었다.

화학공학과 BK-21 교육연구단 이현상 교수팀의 나노·바이오·고분자 유체이론연구가 저명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와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간하는 ‘유체물리학’에 연이어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해외 유명 대학에서 이현상 교수에게 실험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요청해 이뤄진 국제공동연구로, 동아대 화학공학과 BK 교육연구단의 연구 국제화 수준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화학공학과(BK21 Four) 이정규 교수팀은 차세대 ‘리튬-황 전고체전지’를 고성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논문을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 13.4, JCR 상위 3.7%)’ 4월호에 발표했으며, 화학과 김재연 교수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인 ‘ACS Catalysis(ACS 카탈리시스, IF - 11.7, 상위 11.5%/2023년 기준)’에 논문을 게재했다.

화학공학과 구민수 교수는 한국재료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단 김승현 박사와 공동연구팀을 이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용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식 현상을 최초로 실시

간 전기화학 분석을 통해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원자력 과학 및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Research’에 게재됐다.

의약생명공학과 조완섭 교수와 김규리 박사과정생은 세계 최초로 초미세먼지 흡입 후 폐를 빠져나가는 경로와 기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가 실린 논문은 환경과학 분야 상위 6%에 해당하는 학술지 ‘Environment International(IF 10.3)’ 5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건강과학대학 건강관리학과 생체역학실 박화영 학술연구교수는 신경공학 및 재활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Neuro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신경공학과 재활)’에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교육부 4단계 BK21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재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비즈니스학과 황옥연 교수는 학술지 ‘Information Sciences(JCR 상위 6.57%, Impact factor 8.1)’에 단독 저자로, ‘Knowledge-Based Systems(JCR 상위 13.5%, Impact factor 7.2)’에 교신저자로 논문을 잇따라 게재했다.



이현상 교수 이정규 교수



김재연 교수 구민수 교수



조완섭 교수 김규리 박사과정생



박화영 학술연구교수 황옥연 교수

14 대학원생 우수 연구성과 돋보여



정임주 박사



김태훈(가운데) 박사와 오용수(맨 오른쪽) 교수 수상 기념촬영



마하뵘 호세인 프린스 대학원생



왼쪽부터 심민지, 이선영 석사과정생



학회 창립 이래 최초의 학부생 발표자였던 이다해 학생



이태림 석사과정생 발표 모습

동아대 대학원생들이 각종 학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뛰어난 연구력을 인정받았다.

동아대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정임주 박사가 ‘2025 한국의류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회 영원신진학자학술상’, 체육학과 김태훈 박사는 (사)한국스포츠포스산업경영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또 대학원 의상섬유학과(책임교수 최형열) 석사과정 마하뵘 호세인 프린스(Mahabub Hossain Prince, 방글라데시) 대학원생은 ‘2025 한국섬유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

문발표상을 수상했으며, 대학원 영유아학과 심민지·이선영 석사과정생은 (사)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 포스터상’을 받았다.

태권도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은 2025년 대한무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상을 대거 수상했으며, 동 대회에서 ‘학술발표 최우수상(포스터)’과 ‘학술발표 우수상(포스터)’도 휩쓸었다. 대학원 재단관리학과 이태림 석사과정생도 (사)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KICSP, 회장 하연철) 주최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 논문상’을 수상했다.

15

학부생과 대학원생 연구 및 대외활동 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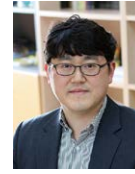
학생은 특히 출원과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했다. 이들은 동아대 LINC3.0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6개월간 ‘노인 욕조용 항균 충전제가 포함된 초소수성 코팅제 개발’ 과제를 수행했으며, 이번 연구 성과는 삼성화이버세라믹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로도 이어져 눈길을 끈다. 이번 연구가 실린 논문은 지난해 12월 화학공학회 부울경지부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민영 석사과정생(책임)과 민지환·최주희 학부생이 참여하는 화학공학과 연구팀(지도교수 양수철)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의 ‘2025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지역 청소년 대상 ‘이공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과도 연계돼 이공계 진출 기반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며, 연구 성과는 특허 출원과 함께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환경·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전공 강민경 석사과정생을 비롯해 김도희·박승원·서보미 학부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지도교수 현창욱)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에 선정됐다. 최신 사물인터넷과 해양탐사 및 지리정보시스템 기술을 결합한 연구를 수행, 에너지·환경·정보통신 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연구활동과 각종 대외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화학공학과 양수철 교수 연구팀 소속 김태홍·심종효



양수철 교수



김태홍 학생



심종효 학생



천민영 석사과정생



민지환 학생



최주희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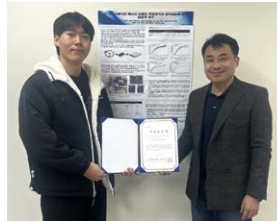
강민경 석사과정생, 김도희 학생, 박승원 학생, 서보미 학생



전제석 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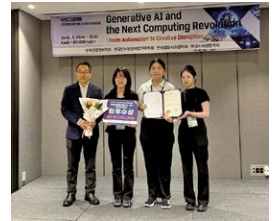
박정원 대학원생



이준찬(왼쪽) 학생과 이무연 지도교수



왼쪽부터 경영정보학과 ‘TapWork’팀, ‘울신입워너두’팀



전제석(바이오메디컬학과 박사과정), 박정원(건강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은 ‘제2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전제석 대학원생은 지난해 석사과정 선정에 이어 박사과정에서도 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기계공학과 RIS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준찬 학생은 ‘제1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부울경지부 학술대회’에서 ‘21700 리튬 이온 배터리 모듈의 액침냉각의 냉각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 우수 논문상을 받았으며,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은 ‘대학생 업무용 모바일 앱-ERP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유일하게 2팀이 본선에 진출, 2팀 모두 최우수상을 받았다.



배성운 대학원생

음악학과를 졸업한 배성운 대학원생은 ‘4Seasons Vienna International Musician Competition’에서 3위에 입상했다. 이 대회는 1995년 설립된 비엔나 문화협회(Culture Meeting Point Vienna)와 모차르트하우스(Mozarthaus Vienna)가 협력, 주최해 전 세계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됐으며, 국제 음악 아카데미 강사들과 저명한 초청 인사들이 심사하고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 김예찬(감독) 학생과 2학년 김수진·박서영·배준화 학생(이상 제작지도교수 권영성)은 ‘제42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에서 ‘블랙매직 디자인(Black Magic Design)’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정민규·이혜운 학생은 ‘2025 (사)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혁신적 콜라보레이션의 효과: 지각된 브랜드 인식과 구매 의도 간의 관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구두 발표 부문 우수 논문발표상을 받았다.



왼쪽부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배준화, 박서영, 김예찬(감독), 김수진 학생



패션디자인학과 주나안 지도교수와 정민규 학생



이혜운 학생

16

캠퍼스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동아대 구성원들이 직접 진행한 각종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 캠퍼스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학술정보원 도서관은 재학생들의 흥미로운 독서를 돕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승학캠퍼스 뉴턴공원에서 야외 책읽기 행사 ‘북(BOOK)크닉’을 개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정적인 독서 방식에서 벗어나 색다른 방식으로 독서하게 도움으로써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독서 일지 작성을 통해 글쓰기 역량 및 문해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은 이번 행사 참가자들에게 책과 피크닉 세트를 대여해주고 간식도 제공, 호응을 얻었으며 재학생 180명(81팀)이 참가해 따뜻한 봄햇살 아래에서 독서와 피크닉을 즐겼다.



승학캠퍼스 뉴턴공원에서 진행된 ‘북크닉’ 모습 책과 피크닉 세트를 대여받는 학생

음악학과는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목요일 정오마다 ‘목요 런치 콘서트’를 열었다. 총 4회에 걸쳐 뉴턴공원에서 열린 콘서트는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한 ‘한국 가곡의 초대’를 첫 무대로, 섬세한 터치와 조화로운 호흡을 선보인 ‘피아노 앙상블의 봄’, 자유로운 퍼포먼스와 감각적인 사운드에 어우러진 ‘봄을 노래하다’, 실용음악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준 ‘동아 어게인’까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다채로운 음악 감상 기회를 제공했다. 매회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성된 콘서트는 탁 트인 공간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계절과 어울리는 선곡과 음악적 깊이로 점심시간 캠퍼스에 풍성한 문화적 감동을 선사했다.



‘목요 런치 콘서트’ 모습

석당박물관은 소장품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ICOM 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만나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은 조선시대 화가 김윤겸이 영남 지역 명소를 직접 여행하며 그린 14점의 산수화다. 특히 부산 태종대, 물운대, 영가대를 비롯해 합천 해인사, 홍류동, 산청 환아정 등이 섬세하게 표현돼 250여 년 전 화가의 붓끝에서 탄생한 영남의 명소들을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영남기행화첩은 화첩의 면에 따라 릴레이 형식으로 구성되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 공간 곳곳에 명패 및 안내 스티커가 배치됐다. 입구에서는 작품의 배경과 의미를 담은 관련 특별 영상도 상영됐다.



동아대 석당박물관 상설전시실 내부



동아대 석당박물관 김윤겸필 영남기행화첩- 1. 물운대

17 씨름부, 2025 삼척 정월대보름제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

스포츠단 씨름부가 '2025 삼척 정월대보름제 대학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 쾌거를 달성했다.

씨름부는 지난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강원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대학부 단체전 금메달을 비롯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신임 하성우(동아대 체육학과 96학번) 감독이 지휘한 첫 대회에서 이룬 성과라 의미가 크다.

대회 첫날 열린 단체전은 출전 순번을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더욱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졌다. 장민수·이시원(체육학과 4), 박성범·김민규(체육학과 3)가 활약하며 결승전에서 역전을 거듭하다 마침내 울산대를 4대3으로 이기며 정상에 올랐다. 이튿날 열린 개인전에서도 동아대 선수들은 3개 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선전했다. 소장급 정성재(체육학과 2), 청장급 김성국(체육학과 3), 용장급 박성범(체육학과 3)이 정상에 올랐으며, 장사급에서는 장민수(체육학과 4) 선수가 은메달을, 용사급 김민규(체육학과 3), 경장급 장희재(체육학과 2), 용장급 송현호(체육학과 1) 선수가 동메달을 땀다.

하 감독은 “모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게 된 것도 영광인데 첫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선수들이 더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씨름부 하성우(뒷줄 가운데) 감독과 선수들

18 야구부 이재현 감독,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어워즈 지도자 부문 수상

스포츠단 야구부 이재현 감독이 지난 2월 22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어워즈 및 대학스포츠 레거시 시상식'에서 U-리그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스포츠 관련 유·무형 유산 발굴 및 홍보를 통한 대학스포츠 가치 창출을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스포츠 레거시 발굴 사업을 실시해 이번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이 감독은 지난해 9월 '2024 KUSF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이끈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감독은 “이렇게 큰상을 주신 KUSF 관계자분께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훈련하고 잘 따라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있었기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물심양면으로 야구부를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해우 총장님, 우진희 스포츠단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동아대는 ‘스포츠 명예의 전당’으로 ‘대학스포츠 레거시’에 선정돼 동판을 수여받았다. 지난 2017년 개관한 동아대 스포츠 명예의

전당은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이름을 알린 스포츠 스타들의 핸드프린팅과 명판, 동아대 체육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표 등으로 예술체육대학 7층 체육관 로비에 자리 잡고 있다.



이재현(왼쪽) 감독 수상 기념촬영

19 동아대 야구부의 불꽃튀는 열정, '불꽃야구'에서 터뜨리다

동아대 야구부가 리얼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로 안방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7월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특집 야구 생중계 동아대학교 VS 불꽃 파이더즈' 경기가 펼쳐졌다. 두 번째 생중계이자 네 번째 직관경기였던 이날의 대격돌은 경기 티켓이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되는 한편, 생중계 방송 역시 분당 최고 시청률 2.3%, 분당 최고 시청자수 26만 6,000명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올해 불꽃 파이더즈에 합류, 어느 팀 소속으로 등장할지 관심을 모았던 '영건 포수' 김민범 선수는 모교인 동아대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다. 불꽃 파이더즈의 김성근 감독(동아대 60학번)은 모교를 상대로 한 이날 경기에 선발 투수로 젊은 피 박준영을 내세우는 한편, 그간 마운드에서 보기 힘들었던 신재영·송승준 선수를 기용하는 등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으로 팬들을 열광케 했다.

동아대는 정재현 선수를 선발 투수로 왕준석·장성현·유혁·신하늘·진신규·김민범·이근우·김락현 선수 등이 타자로 활약했다. 경기는 초반인 2회 말 박재욱 선수의 투런 홈런을 시작으로 6회 말 이대호 선수의 만루 홈런에 7대2로 점수 차가 벌어지며 12대4로 불꽃 파이더즈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하지만 동아대 야구부는 9회 말까지 맹추격으로 경기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많은 팬에게 다음 불꽃야구의 직관 일정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멋진 경기를 선사했다.

1948년 4월 야구반으로 창설한 동아대 야구부는 1956년 야구부로 승격, 1957년까지 2년간 전국대회에서 4차례 우승하며 그 명성을 공고히 했다. 1974년까지 전국대회 8번의 우승, 12번의 준우승에 이어 1978년 제5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1982년까지 우승 8회, 준우승 4회의 성적을 거뒀다. 이후 1983년 대통령기와 같은 해 전국체육대회 등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난해엔 '2024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 우승'이란 성과로 야구 명문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동아대 VS 불꽃 파이더즈 경기 모습



경기 후 동아대 선수들



2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방대원 정신 건강 안전 캠페인’ 다큐멘터리 제작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협업, ‘소방대원 정신건강 안전 캠페인’ 다큐멘터를 제작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 다큐멘터리 제작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영상콘텐츠제작세미나(담당교수 권영성) 수업을 수강하는 4학년 학생들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사담 프로덕션(책임 프로듀서 임유진·조가을), ‘엠버스 프로덕션(책임 프로듀서 신민선·이고은), ‘B 프로덕션(책임 프로듀서 김예찬·황진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마음돌봄센터가 협업으로 소방대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큐멘터리 총 3편을 제작했다.

‘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불씨’, ‘잔열’이란 제목이 붙은 다큐멘터리는 시민 대상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대처방안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으며,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부산소방재난본부 SNS, 인트

라넷 등에 배포돼 소방대원 정신건강 지킴 활동에 활용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2023년과 2024년에도 부산광역시경찰청과 협업을 진행, ‘디지털 범죄’, ‘가정폭력 예방’ 등 캠페인 다큐멘터를 제작한 바 있으며, 이번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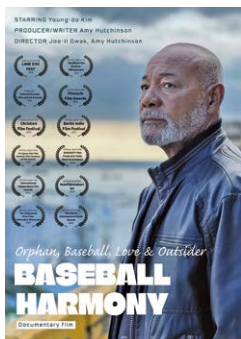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협업해 제작한 ‘소방대원 정신건강 안전 캠페인’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과 강서경찰서 관계자

21 김영도 동문 주인공 ‘베이스볼 하모니’
2025년 에미상 노미네이트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 (BASEBALL HARMONY)’ 포스터

72학번 동문이자 야구부 4번 타자였던 김영도 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BASEBALL HARMONY)’가 ‘2025년 에미상’ 후보 다양성 부문(DEI)에 올랐다.

한국에서 흔히 ‘미국의 TV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다양한 부문별 시상식이 연중 각기 다른 시기에 개최된다.

1950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김영도 씨는 흑인 혼혈에 대한 차별과 설움을 겪으며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68년 동아대 야구 장학생으로 스카우트되며 ‘한국 최초의 흑인 혼혈 야구선수’가 됐다. 동아대 시절 그는 3, 4번 타자와 1루수를

도맡으며 ‘그라운드와 와일드 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감독 홍지영, 미국명 Amy Hutchinson)’는 동문 김영도 씨의 이야기를 테마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야구를 통해 맺어진 한국과 미국의 특별한 인연을 탐구하며,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 속에서 피어난 양국 간의 문화적·역사적 유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대는 한국 최초의 흑인 혼혈 야구선수이자 체육교사, 야구감독이었던 김영도 씨의 인생 역경을 다룬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 특별 상영회를 지난해 1월 교내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엔 홍지영 감독, 동아대 야구부 선수, 스포츠단 관계자, 김영도 씨와 동기인 김창복 전 동아대 야구부 감독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으며, 홍 감독이 즉석에서 김 씨와 영상통화 연결도 해 눈길을 끌었다.



2024년 1월 3일 동아대 예술체육대학1관 정산홀에서 열린 ‘베이스볼 하모니’ 특별 상영회

경기장에서 캠퍼스로

챔피언의 귀환



국제무대를 주도했던 국가대표,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로
무대를 바꾸다

- 2018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남자 -68kg급 금메달
- 2017 세계태권도연맹 월드태권도그랑프리파이널
남자 -68kg급 금메달
- 2016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태권도 남자 68kg급 동메달
- 2015 제1회 카타르 국제 태권도 오픈 챔피언십
남자 63kg급 금메달
- 2014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태권도 남자 63kg급 금메달
- 2013 제2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63kg급 금메달
- 2012 제30회 런던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 이하급 은메달

태권도 레전드,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다

예술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이대훈 교수

Q. 동아대로 오신 데 대해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 첫 지도자님이 동아대 감독님이셨어요. 마침 아버지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자 제 고등학교 은사님도 대표팀 지도자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갈 때면 응원하러 오신 아버지가 은사님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감독님 과도 자주 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동아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러 국제대회를 동아대 선수들과 국가대표로 함께 다니며 친해졌는데, 당시 그 친구들의 기량이나 성과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동아대학교=좋은 학교’로 각인했습니다. 재작년에 박사를 취득하고 교수로서 강단에 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 동아대에서 특채 공고가 뜬 거예요. 제게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면접 등 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의 진심과 열의가 마음에 와닿아서 큰 고민없이 동아대로 오게 됐습니다.

Q. 선수 시절부터 태권도 교수가 목표셨다고요.

고등학교 은사님, 대학교수님, 아버지까지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고 지도해주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대훈야, 너는 교수가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태권도를 잘하고 그만큼 잘 아니까, 은퇴 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교수를 목표로 꾸준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요. 운동만 해온 저에게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선수로서 쌓아온 커리어를 잘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공부가 적성에 맞기도 했습니다. 박사 과정 중에는 항상 마지막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을 정도로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Q. ‘교수 이대훈’만의 강점이 있다면?

사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동료 교수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론 수업 시 참고가 될 만한 강의 자료도 공유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요. 앞으로 2년 정도는

힘들 거라고 하셔서 ‘다 그런 거구나’며 안심도 되고 ‘잘 준비해 보자’고 긴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겐 국가대표 활동 경험과 타 대학에서의 코칭 경력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박사 과정 중에 교수님들의 지도법을 접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필요로 하는지 곁에서 지켜보며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지 등에 대한 틀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실전 수업에서 더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어요.

Q. 앞으로 교수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멀리서 저를 보더라도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수업 태도가 좋은 건 기본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구나’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체계적인 수업 커리큘럼은 물론이고,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사이가 좋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학과는 수많은 대학의 태권도학과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교의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안주하지 않고 동아대 태권도학과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경계를

넓히다



Park Hyuk

오늘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이의 내일을 기쁘게 돌려주다

이미 이룬 자리에서 더 확장한 ‘나의 스펙트럼’

박혁세무회계사무소+로앤텍스 법률사무소 박혁 대표 / 법학전문대학원 12기

Q. 세무 관련 전문가로 탄탄한 경력을 쌓아오셨는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삼일회계법인에서 5년, 국세청에서 5년 정도 일하면서 세금 관련 업무를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개업하고 보니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는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세법 전문 변호사를 찾기 힘든 데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고 싶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제가 세법 전문가이지만만큼 관련된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어요.

Q. 한 인터뷰에서 “늦은 나이에다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모교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중부산세무서에서 7급 세무공무원 생활을 마친 후 개업한 박혁세무회계사무소 위치가 보수동이었어요. 부민캠퍼스와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여서 자주 동아대를 찾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동아대 로스쿨은 나이가 많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했어요. 로스쿨은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학하다 보니 제 나이(당시 47세)가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아대의 경우 나이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해 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Q. 로스쿨 시절을 돌아보신다면?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사무실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인 학교까지 택시를 셀 수도 없이 탔어요.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무음 상태로 해놓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계단에서 끊임 없이 전화해야 했고, 제때 통화하기 힘들다는 고객들의 항의도 많이 받았죠. 휴업일인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비로소 마음 폭 놓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늦은 나이에 우리나라 최고 자격증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Q. 일과 학업의 양립이 참 어렵죠. 그만큼 학교를 다니면서 감사한 분도 계실 듯 합니다.

1학년 때 헌법을 가르치시는 조재현 교수님과 상담 중에 헌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떤 헌법 기본서를 봐야 하는지 여쭙보았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수업 때 나눠준 출력물들에서 다루지 않은 헌법 분야가 있던가?”였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업 내용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며, 시중에 있는 모든 헌법 기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더 좋은 책을 찾으려고 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자의 우문에 헌답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 2023년 졸업하셨는데, 그때부터 매년 로스쿨에 12기 동기들과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계세요.

입학하면서부터 어떻게든 학교에 보탬이 되자는 마음을 무력무력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학 시절 최우용 교수님께서 “여러 여건상 학생에게서 기부를 받는 것은 어려워요”라고 하신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졸업하면 해야지!’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을 이룬 셈입니다. 동기들에게도 기부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전했는데, 고맙게도 흔쾌히 동의해 줬어요. 이후로 다른 기수들도 힘 모아 기부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Q.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은 변호사를 포함한 각종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특성상 각종 문제가 엮여 있어서, 분야별 전문가를 별도로 찾아서 만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의 감사 및 컨설팅 경력과 국세청에서의 경험, 변호사로서의 법률 지식을 토대로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매일(DAILY)
만나는

더 큰 세상

다양한 문화를 잇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세계와 동아의 연결고리

Dong-A I Love You



글로벌 동아의 시너지가 되다

국제교류과 제8기 데일리 서포터즈

DAILY-A(Ambassadors) 김은서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23학번

DAILY-B(Buddies) 오주아 / 정치·사회학부 23학번

Q. 외국인 유학생 공식 서포터즈 데일리(DAILY: Dong-A I Love You)는 두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DAILY-A DAILY-A는 동아대에 재학 중인 약 2,100명의 유학생이 낯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더 즐겁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외국인 유학생 통합 서포터즈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우면서 동시에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DAILY-B DAILY-B는 서포터즈 학생 한 명이 초청 교환학생 4~5명의 버디(짝)로 매칭돼 정착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 활동을 합니다. 입학 초기에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조력하고, 수강 신청·외국인 등록증 신청·한국 통장 개설·의료 관련 서류 준비 등을 담당해요. 4월 외국인등록증 개설이 끝나면, 버디가 해야 할 큰 업무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Q. 각 팀의 역할이 다른 만큼 활동이 가진 매력도 다를 것 같습니다.

DAILY-A 단순히 행사를 운영하는 팀이 아니라, 유학생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 부원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유학생들과 가까이서 호흡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진짜 친구가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DAILY-B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A와는 다르게 B는 매칭 교환학생이 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업무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도움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업무들을 하다 보면 담당 교환학생과 정말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공식활동이 끝난 이

후에는 다 같이 야구도 보러 가고, 피크닉, 등산 등을 함께 하면서 외국인 교환학생과 서로 진정한 친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Q. DAILY가 동아대의 국제화 역량에서 중요한 한 축인 만큼,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실 듯 합니다.

DAILY-A DAILY 활동 전까지는 사실 학교에 이렇게 많은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어요. 유학생뿐만 아니라 어학당,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재학생들도 유학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지 직접 경험했구요.

DAILY-B 교환학생을 비롯해 학부생, 대학원생, 한국어학당 학생들까지 우리 학교에 많은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인 것과 Global Lounge staff, Global WIN-Win, K.S.S staff 등 DAILY 외에도 다양한 교내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세계 곳곳 우수한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것도요.

이런 점에서 동아대의 국제화 역량이 경쟁력 있고 높은 수준임을 느끼게 됩니다.

Q. 제8기 DAILY의 2025년 남은 활동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DAILY-A 유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앞으로 있을 활동과 프로그램을 부원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DAILY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DAILY-B 버디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재미있는 추억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길도 잘 배웅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콜라보, 2025 트렌드를 입은 석당박물관 소장품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대표 소장품을 색다르게 풀어낸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유물에 재학생들의 상상력이 더해지며, 반짝이는 10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석당박물관 굿즈를 지금 만나보자.



Seoc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2025



DONG-A GOODS IDEAS 10



조선의 시간을 벽에 걸다

해를 닮은 벽시계

중국학과 문신영



Idea

해시계의 전통적 디자인을 현대식 벽시계로 재해석해, 원형과 모양을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더했다.

Design Talk

소장품처럼 기존의 나무 재질을 살리고 싶었다. 해시계에 시침과 주요 시간 표시를 추가해 아날로그 감성을 현대적으로 완성했다.



멀티탭으로 만든 지역 유산

plug-on 부산 전차

경영학과 최시원



Idea

전국에 단 3대만 남은 부산 전차를 모티프로 삼아, 실용적인 멀티탭에 지역 유산의 가치를 담았다.

Design Talk

부산 전차의 형태와 색감을 담은 3구 멀티탭. 'plug-on 부산 전차'라는 이름엔 역사를 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단순한 전자제품을 넘어, 부산의 기억을 품은 디자인이다.



왕실의 품격을 디지털 기기에 담다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무선 이어폰 케이스 경제학과 조아정

Idea

왕실 가구의 우아한 형태와 문양을 현대 디지털 기기에 담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완성했다.

Design Talk

무선 충전, 키링 연결, 휴대성을 고려한 구조로 실용성과 조형미를 모두 갖췄다. 글로벌 감성 아이템으로 현대 디지털 기기에 전통 가구의 형태와 문양을 재해석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조용한 잔치

정연(靜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정현

Idea

정연(靜宴)은 '조용한 잔치'라는 뜻으로 차를 마시며 내면의 연회를 즐기고, 마음을 돌아보길 바란다는 뜻에서 기획했다.

Design Talk

작은 생명까지 섬세하게 표현한 '자수 초충도 병풍' 8첩 이미지를 패터화했다. 전통미를 살리고, 자연 소재를 티백의 재료로 활용해 차잔에 자연의 맛과 향을 더했다.



세계에서 가장 달콤한 전차

부산 전차 쿠키 세트

식품생명공학과 손채영

Idea

부산 시민의 일상과 연결된 부산 전차 모양의 쿠키와 포장으로 부산 문화유산의 가치를 즐겁고 맛있게 전달한다.

Design Talk

전차 외형을 본뜬 쿠키 디자인과 휴대성 및 위생을 고려한 포장으로, 박물관 방문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적합한 지역 기념품으로 기획됐다.





수영아류 탈 범, 머리 위에 올라타다

수영아류 탈 범 어린이 야구 모자 미술학과 장지은



Idea

어린이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민속문화 유산인 수영아류 탈의 모습을 캐릭터 굿즈로 활용했다.

Design Talk

수영아류 탈 11점 중 범(담비) 탈을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해 야구모자에 적용했다. 야광 무늬로 흥미를 더하고, 시리즈 확장도 고려해 제작했다.



한국 유산의 세련된 변주, 프리미엄 필기구

쌍자총통 만년필 응용생물공학과 이유채



Idea

한국 전통의 정수를 세련된 형태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필기구 라인을 기획했다.

Design Talk

쌍자총통의 청동 질감을 살린 회녹색 배럴에 절제된 직선 디자인과 표준 잉크 규격을 적용해 실용성과 전통미를 담았다.



안중근 의사의 뜻을 일상에서 쓰다

안중근 의사 유묵 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희빈

Idea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유묵의 뜻을 친환경 빨대에 접목해, 역사적 의미와 실천적 가치를 함께 전달한다.

* 의로운 것을 보았을 때는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

Design Talk

두루마리 족자의 종이 재질을 차용했다. 패키지 구성으로 다회용 빨대와 전용 보관함, 세척 솔을 함께 구성해 친환경 굿즈로 완성했다.



사색의 순간을 담은 고려 흑유호

흑유호 티라이트 - 시간을 담은 잔 정보수학과 김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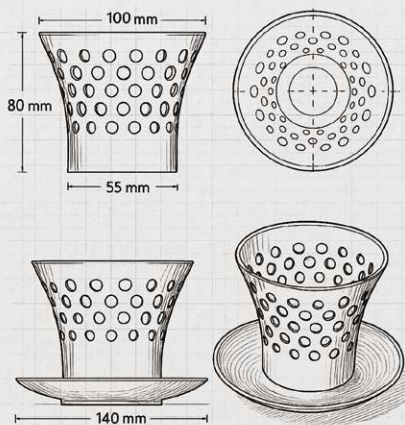
Idea

고려시대 유물인 '흑유호'와 '흑유정병'의 색감과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티라이트 홀더로, 일상에 사색과 여유를 선사한다.

Design Talk

세라믹 소재에 흑유호의 곡선과 색감을 담아내고, 내열성과 안정성을 갖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조화롭다.

흑유호 티라이트 도안



DONG-A GOODS IDEAS 10



Seoc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한국 불교문화의 정서를 피우다

목조보살좌상 인센스 홀더

중국학과 강성윤



Idea

목조보살좌상의 정신성과 아름다움을 인센스 홀더로 구현해,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경험하는 감성 오브제로 풀어냈다.

Design Talk

보살상의 자연스러운 자세를 활용해 인센스 스틱을 고정하고, 연기가 부드럽게 감도는 구조로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실용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춘 한국적 힐링 굿즈.

신정택 총동문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신정택(오른쪽) 총동문회장과 이해우 총장

신정택 총동문회장(세운철강(주)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신정택 회장은 지난 1978년 세운철강(주)를 창립, 부산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향토 기업인으로, 제19~20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2015~2021년) 등을 역임하며 지역민들의 큰 신뢰를 얻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모교인 동아대에 16억 원에 달하는 발전기금 기부를 비롯해 사회·교육·스포츠·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100억 원 이상을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불린다.

또 사회공헌과 지역 발전에 앞장선 공로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나

눔국민대상 장관 표창장(2022), 국민훈장모란장(2015), 제32회 무역의날 천만불 수출의탑, 제24회 상공의날 산업포장, 제36회 조세의 날 철탑산업훈장,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 대상(2013),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2012), 대한민국사회책임경영대상(2010), 부산시민산업대상(2009), 한국의 존경받는 CEO 대상(2008)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신정택 회장은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덕분에 모교가 글로벌컬대학30과 라이즈 사업 선정 등 모든 면에서 순조로운 것 같다”며 “모교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뭘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더 관심을 두고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동아대가 최고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

박수곤 송우산업 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박수곤(왼쪽) 송우산업(주) 회장과 이해우 총장

박수곤 송우산업(주)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지난 6월 11일 동아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이해우 총장과 신정택(세운철강 회장) 동아대 총동문회장, 동아대 본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동아대 경영학과 출신인 박수곤 회장은 지난 1998년 자동차 및 일반 산업용 고무호스 선진화를 선도하는 송우산업(주)를 설립,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던 인터쿨러 호스를 자체 기술개발로 국산화에 성공,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 제10~11대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지속적인 R&D 투자와 제품 국산화, 친환경적인 자동화 공정 개발 등으로 동탑산업훈

장(2015)을 수상했다.

박수곤 회장은 “글로벌 대학 선정 등 모든 면에서 항상 동아대가 중심에 있고 어려운 일도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며 동문으로서 자랑스럽다. 총장님이 대학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신정택 회장님과 동행해 영광이다”며 “지역기업과 대학이 상생해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우 총장은 “동문들이 똘똘 뭉쳐 학교를 염려, 배려해 주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줘 대학의 여러 지표가 좋아졌다”며 “지표 상승과 함께 내실을 잘 다져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대학을 운영하고 명실상부 한강 이남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03 이동춘·김채수·김종민 교수, 박경덕·하동식 동문, 장상목 교수 가족 등 공과대학 발전기금 5,000만 원 전달



동아대 공과대학 발전기금 기부자들과 이정재 공과대학장

지난 6월 26일 공과대학 2호관 로비 ‘명예의 전당’에서 공과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춘 산업경영공학과 명예교수 1,000만 원 △김채수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1,000만 원 △박경덕 (주)동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000만 원 △하동식 (주)한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000만 원 △김종민 화학공학과 교수(화학센터연구실 대표)·장원석(장상목 명예교수 가족) 1,000만 원 등 모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특히 이동춘 명예교수와故 김희종 전 공과대학장은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 추대됐다. 기부자이자 명예의 전당에 추대된 이동춘 명예교수는 공과대학장과 교무·연구처장, 대학원장을 역임하며 학문과 대학 발전에 기여했고 대한인간공학회장을 지냈으며,故 김희종 전 학장은 제 4~5대 공과대학장을 역임, 대학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기부자인 김채수 교수는 교무처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교육행정과 대학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김종민 교수는 동아대 화학공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5년 모교 부임 후 후학 양성과 연구에 힘써 왔다. 제31대 공과대학장을 역임한 장상목 교수 정년퇴임을 기념해 화학센터연구실 졸업생들의 뜻을 모아 기부했고, 장상목 전 학장 자제인 장원석 씨 또한 기부에 동참했다.

박경덕 (주)동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동아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과대 발전을 위한 뜻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하동식 (주)한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또한 동아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공과대학 미래를 위한 귀중한 뜻을 전했다.

이정재 공과대학장은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동아대 공대는 글로벌 첨단융합공학부 설립, 공대1호관 신축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발전기금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새겨 함께 축복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선배 교수님들을 본받아 더 열심히 해서 공과대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공과대학 발전기금 전달식 참석자들

04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학교 발전기금 3,000만 원 기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회장 최광식)이 학교 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국내 육상화물운송업을 대표해 화물운송사업자 보호와 사회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1981년 설립됐으며, 최광식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제25대 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최광식 회장은 “오래전 인연으로 80년대 이후 학교에 오랜만에 왔는데 감회가 새롭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총장님의 결단력과 리더십에 여기저기서 좋은 평을 많이 들었고 동아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식(왼쪽)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회장과 이해우 총장



05 윤상우 사회과학대학장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윤상우 사회과학대학장이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윤상우 교수는 지난 2011년 동아대에 임용돼 지난해 6월부터 사회과학대학장을 맡고 있다. 발전사회학, 산업사회학, 사회변동론, 동아시아, 비교정치경제 등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사회학』, 공저서로 『글로벌 패러독스: 아시아의 도전과 과제』 등이 있다.

윤상우 학장은 “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커 보답하고 싶은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과학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더 활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해우 총장은 “국제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을 더 키워 학교를 탄탄하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상우(왼쪽) 사회과학대학장과 이해우 총장



06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익명으로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가 익명으로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모 교수는 5년간 모두 5,000만 원의 학과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만 원을 동아대 대외협력과로 전달했으며, 그동안 일시납 또는 월납 형식으로 꾸준히 동아대에 기부한 발전기금은 이 밖에도 3,600여 만 원에 이른다.

박헌태 대외국제처장은 “평소 제자 사랑이 각별하고 강의와 연구에도 늘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존경을 표하고 있다”며 “훈훈한 발전기금 전달 소식이 구성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동아대 승학캠퍼스 전경

07 류진우 AMP 원우회장 등 58기 일동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3,000만 원 기부



지난 2월 5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제58기 수료식에서 류진우 원우회장을 비롯한 58기 원우 일동이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 196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3,2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동아대 AMP는 최고경영자가 갖춰야 할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류진우(오른쪽) AMP 제58기 원우회장과 강대성 부총장

08 박봉수 MBA 58기 원우회장 다우이스트 기프트 릴레이 기부 제58호로 1,000만 원 기부



박봉수(오른쪽) 58기 원우회장과 최규환 경영대학원장



홍지영(오른쪽) MBA 57기 원우회 수석 부회장과 최규환 경영대학원장

경영대학원 2025학년도 제59기 MBA(석사 학위과정)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에서 박봉수(58기) 원우회장이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한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58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3월 4일 열린 이날 행사에선 에스알디자인컴퍼니 대표인 홍지영 MBA 57기 원우회 수석부회장의 '과제도서실 리모델링' 현물 발전기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09 장성혁 제52대 AMP 총동문회장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장성혁(왼쪽) 제52대 AMP 총동문회장과 이해우 총장

7월 2일 열린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총동문회 2025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장성혁(57기) (주)탑퍼니스 대표가 AMP 제52대 총동문회장에 취임,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의 AMP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 부울경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동문 CEO 네트워크 형성, 미래 경영 트렌드와 산업을 소개하고 현실적인 경영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0 재난관리학과 졸업생 및 이동규 책임교수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졸업생 4명과 이동규 책임교수가 총 1,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동아대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릴레이 기부 문화는 이동규 교수의 2020년 저서 인세 200만 원 기부로 시작, 2021년 대학원생 26명이 동참한 1,000만 원, 2024년 김중수·류승훈·조정호 박사 1,000만 원 약정으로 이어져 오며, 단순한 후원을 넘어 학과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의 하나로 추진돼 눈길을 끈다.



왼쪽부터 이동규 교수, 배진모 박사, 백승창 석사, 최기원 석사, 박철우 박사, 송강직 대학원장

11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변호사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동문 이인수 법무법인 유화 대표변호사가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를 졸업,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인수 변호사는 올해 변호사 경력 12년 차로, 지난 2014년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 등록 최연소 변호사(만 26세)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오른쪽) 변호사와 이해우 총장

12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졸업생 12명 로스쿨 발전기금 1,200만 원 기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2기 졸업생들이 발전기금 1,200만 원을 기부했다. 특히 동아대 로스쿨 12기 졸업생들은 지난 2023년부터 3년째 해마다 이맘때 십시일반으로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5월 28일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엔 이해우 총장과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장, 기부자 대표 박혁(로앤티스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박헌태 대외국제처장, 이해우 총장, 박혁 변호사,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성혁 비서실장

13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동아대와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관계자들

농협중앙회 부산본부가 대학생 농촌 일손돕기 활성화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3월 6일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은 2024학년도 동아대의 우수한 농촌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농촌에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활동 장려를 위해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후원을 받아 기금을 전달했다. 앞서 동아대와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와 2021년 '농촌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14 오키씨 황순옥(대학원 부동산학과 재학) 대표 3,000만 원 상당 스마트 부동산 정보 분석 플랫폼 기증



왼쪽부터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황순옥 (주)오키씨 대표, 이해우 동아대 총장, 남지민 동아대 총학생회장

(주)오키씨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부동산 정보 분석 플랫폼을 기증,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로비에 '우리동네 안심 부동산 AI-BOX'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주)오키씨가 개발한 부동산 정보 분석 플랫폼 '오지라퍼'를 기반으로 한 '우리동네 안심 부동산 AI-Box'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 “동문이 챙기는 후배들 아침밥” 박광웅 (주)온리원 대표의 아름다운 기부 ‘눈길’

“후배들 아침밥은 내가 챙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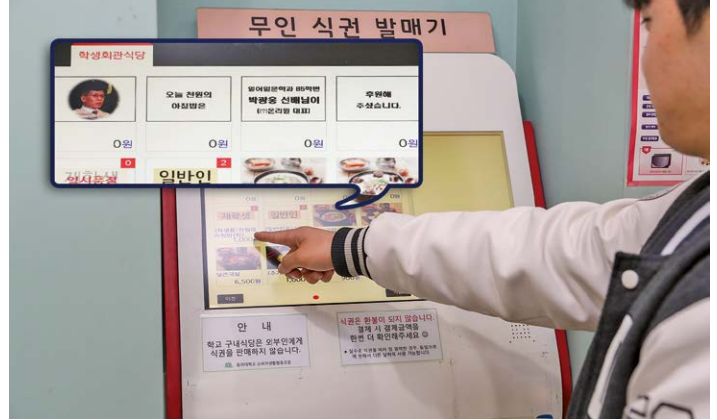
박광웅 (주)온리원 대표가 ‘천원의 아침밥’ 지원 목적으로 발전기금 2,100만 원을 기부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목적으로 개인이 기부한 발전기금은 최초다.

박광웅 대표는 동아대 일어일문학과(현 일본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원무역’을 설립, 한국과 일본 간 수산물 수출입업으로 수산업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지난 2008년 온리원을 시작으로 베스트마린(2013), (주)온리원(2017) 대표를 거치며 글로벌 진출을 통해 한국 수산물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했다.

자수성가한 그는 지역사회에도 헌신했다. 요양시설 기부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모교 동아대에 ‘박광웅 동문 장학금’을 비롯해 총 2억 2,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후배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번 기부로 박광웅 대표가 동아대에 기탁한 금액은 2억 4,000여 만 원에 이른다.

박광웅 대표는 “학생 시절 풍족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후배들은 나 같은 어려움을 덜 겪길 바라는 마음에서 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대는 지난 2023년부터 승학캠퍼스 학생회관과 도서관 식당, 부민캠퍼스 국제관 기숙사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루 200명씩 매달 4,200명(중복 포함)이 이용 중이다.



학생회관에서 천원의 아침밥 식권을 구매 중인 학생



박광웅 (주)온리원 대표

청량사·법정사 천 원의 아침밥 쌀 1,000kg 기증

HAPPY DONATIO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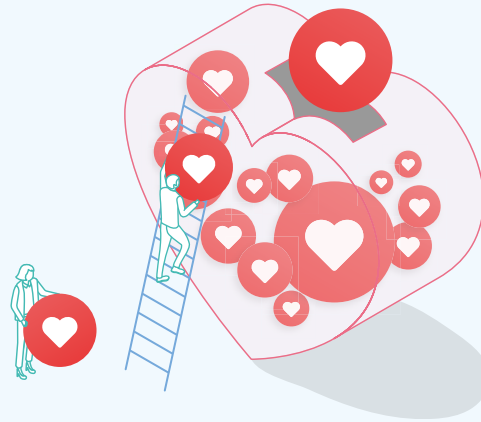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청량사(주지 호산스님)와 강서구 생곡마을 소재 법정사(주지 해안스님)가 천원의 아침밥 쌀 1,000kg을 기부했다. 쌀 전달식은 지난 1월 22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 식당에서 호산스님과 해안스님, 김성목 동아대 대외협력과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호산스님과 해안스님은 “학생들이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공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생존하는 날까지 부산 전역에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지난 시간 동아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동아의 미래 발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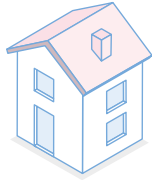


발전기금
홈페이지



발전기금
후원하기

동아대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 가입혜택

-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매년 명절 동감와인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달력 및 소식지 발송

발전기금 기부현황(2025년 3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단체

(재)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주)유디엠	동아대박사태권도장	이숨건축사사무소	(주)어나더에이건축사사무소
(주)HKM	(주)중앙이앤씨	동아대학교 간호대학 졸업동문회	인사이트 법률사무소	(주)에너텍유나이티드
(주)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지앤지코퍼레이션	리노공업 주식회사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림
(주)건축사사무소양크르	(주)지앤시	미래넷	(주)대현토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대성문	GS건설주식회사	법률사무소 규리	(주)삼일섬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마루
(주)메종건축사사무소	KNN 문화재단	법무법인 유화	주식회사 라움건축사사무소	(주)한수엔지니어링
(주)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OK건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주식회사 어디건축사사무소	(주)희중종합건설
(주)비에프씨씨	거제리 명가	비케이메탈	주식회사 에스케이 컴퍼니	짓다 건축사사무소
(주)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메종	숲속심리언어상담센터	주식회사 에이블에코	한방유비스(주)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경동건설(주)	에너지엑스(주)	주식회사버티엑스모빌리티	한일건설(주)
(주)에듀피플스	고강종합건설(주)	유엔에이건축사사무소	(주)신도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온리원	덕천필리부과의원	윤석중법률사무소	(주)아키텍케이건축사사무소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후원의 집

(주)울복스	더진국하단점	산정	어심초밥	투썸플레이스 동아대점
금호횡집	도리원	상록광고기획	영의루	플로르델디아
남포맥주	동경초밥	소담	유유외과의원	홍부가
누리마을감자탕	동원장수촌	송월타올	이모식당	
대궁삼계탕	밝은눈안과의원	송이아구짬	진선	
대물림 청송집	밝은세상안과	송해횡집	초원복국	
대훈기획	본가사하점	아이시티안과의원	카플러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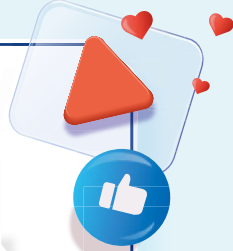
강금순	고유석	김경태	김명숙	김세훈	김일영	김창완	남상설	민지홍	박수호	박철홍	백종국	성이용	신상의
강기수	고윤성	김경화	김명종	김소현	김재한	김창훈	남승덕	민혜숙	박순영	박춘희	백주안	성지현	신성현
강나현	고재연	김경희	김묘연	김수련	김재현	김채윤	남승현	박경덕	박순우	박한솔	백차승	손경석	신성호
강남욱	고홍수	김광란	김문범	김수인	김재홍	김청길	남윤성	박경렬	박승종	박한신	백희자	손광석	신숙영
강누빈	공미정	김구	김미란	김수정	김점수	김춘영	남은희	박경만	박시윤	박해일	변상민	손민근	신승욱
강다연	공병민	김구연	김미소	김수진	김정곤	김춘호	남지연	박경미	박언주	박해지	변선영	손석주	신영완
강대성	공윤종	김권민	김민수	김순진	김정대	김태근	남찬섭	박경식	박영일	박혁	변성우	손정순	신용우
강대원	공혜경	김권호	김민정	김승민	김정득	김태완	남창우	박경애	박영태	박현숙	변성철	손종우	신용택
강동구	곽기혁	김규범	김민주	김승우	김정미	김태우	남현정	박경우	박영후	박현우	변성호	손종윤	신용호
강동울	곽길수	김근민	김민철	김승일	김정민	김태원	노강민	박광원	박용섭	박현태	변영철	손창현	신윤호
강동일	곽명서	김근우	김민형	김승태	김정석	김태철	노상우	박광휘	박용성	박형태	변영학	손태종	신재봉
강동헌	곽미진	김기수	김민희	김승호	김정아	김태현	노연정	박기상	박유영	박혜진	변행석	손판도	신재욱
강동훈	곽선화	김기영	김범수	김시동	김정하	김태훈	노영진	박기현	박유진	박환석	사정훈	손하은	신정택
강래욱	곽은희	김기정	김병건	김애희	김정화	김태희	노영훈	박녕쿨	박윤경	박효민	서광민	손현준	신정현
강명진	곽재현	김기종	김병국	김양곤	김정희	김하나	노창현	박달해	박은경	박희태	서금홍	손현진	신정환
강명호	구관회	김나량	김병권	김양이	김종국	김학이	노춘근	박도영	박은정	반성욱	서대관	손현태	신종근
강문성	구두철	김나현	김병립	김연국	김종렬	김해정	노해성	박동민	박일근	반순호	서동균	손형수	신지윤
강민준	구종환	김남국	김병수	김연하	김종목	김항이	노현숙	박동익	박재군	반한용	서명교	손홍락	신창엽
강범석	권기향	김남균	김병찬	김영근	김종수	김현	노현욱	박동환	박재우	방대종	서미옥	손홍모	신태환
강상모	권대성	김남희	김보람	김영민	김종식	김현민	노희관	박미정	박재진	방성운	서봉수	손희찬	신현범
강상훈	권동식	김달효	김보배	김영선	김종욱	김현우	도동오	박미향	박정국	방순금	서석준	송강직	신호민
강석우	권명수	김대건	김보연	김영우	김종준	김현준	라광현	박민선	박정호	배길석	서승원	송대성	신희진
강성원	권성길	김대경	김봉진	김영준	김종혁	김현진	류관호	박민성	박종귀	배도정	서쌍용	송명근	심미화
강성윤	권순일	김대륙	김상봉	김영하	김종현	김형록	류단비	박민수	박종민	배동고	서영호	송모란	심부자
강성현	권영근	김대영	김상열	김영학	김주연	김형빈	류미향	박병권	박종울	배문형	서우석	송민정	심영규
강영조	권영삼	김대욱	김상엽	김영호	김주영	김형석	류민호	박병규	박종현	배상우	서재유	송성화	심재후
강은미	권영성	김대웅	김상준	김영환	김주오	김형진	류상수	박복자	박종훈	배성류	서정우	송성훈	심형열
강은혜	권영준	김대윤	김상진	김영훈	김주찬	김형철	류순식	박봉경	박주상	배영민	서정택	송시영	심환기
강이래	권영탁	김대준	김상태	김오연	김준석	김혜경	류승훈	박봉철	박주현	배유일	서주환	송유진	안경순
강정호	권오구	김대중	김상현	김완중	김준우	김혜영	류용주	박상석	박준혁	배주용	서주희	송인환	안기범
강종훈	권오근	김대진	김상호	김용준	김준찬	김혜정	류윤아	박상아	박준호	배주원	서창현	송재만	안길용
강주용	권우정	김대현	김석지	김우남	김지건	김혜진	류은영	박상욱	박준홍	배지영	서추연	송형기	안나현
강지연	권재영	김대환	김석현	김우현	김지나	김회경	류재금	박상원	박지연	배진경	서현준	송호근	안도형
강지현	권주영	김덕현	김선경	김원재	김지만	김효준	류지희	박상혁	박지용	배진모	서화영	송흔춘	안미혜
강태홍	권창영	김도경	김선미	김원준	김지숙	김훈	문건주	박상현	박지은	배진영	서효진	신경미	안병훈
강하승	권태정	김동국	김선익	김윤경	김지현	김휘겸	문동욱	박석강	박지혜	배태섭	서희선	신경아	안분훈
강항모	권한용	김동섭	김선진	김윤정	김지혜	김희경	문병진	박석주	박지혜	배한숙	선정애	신경탁	안상근
강혜진	권혜민	김동수	김성기	김윤진	김진경	김희돈	문상진	박선희	박진수	배형우	선종수	신기욱	안새봄
계민수	권혜원	김동우	김성동	김윤희	김진길	김희선	문선영	박성범	박진억	배홍준	설영진	신미경	안영주
고상만	권효철	김동준	김성렬	김은경	김진석	김희준	문수현	박성빈	박진영	백건희	설형수	신민준	안원석
고선영	권희진	김동진	김성목	김은영	김진수	나웅	문영주	박성제	박진철	백경민	성기근	신병준	안일선
고성광	기성훈	김동환	김성재	김은주	김진웅	나진숙	문요한	박성혁	박차원	백상훈	성낙용	신봉준	안태형
고성원	김건욱	김동훈	김성진	김은진	김진윤	남경문	문진효	박세영	박찬규	백승우	성병찬	신부삼	안혜령
고수현	김건우	김만재	김성태	김은혜	김진홍	남광호	문찬혁	박세준	박창구	백승이	성봉자	신상문	안효성
고여경	김경민	김명기	김성현	김익도	김진효	남명구	문체연	박소연	박창열	백승창	성세환	신상열	안효익
고영남	김경보	김명범	김성훈	김익현	김창석	남보현	문철주	박소영	박창현	백영기	성수현	신상용	양건석
고영라	김경진	김명수	김세민	김일봉	김창오	남상돌	민영기	박수천	박철우	백정환	성승욱	신상원	양근혁

양동원	윤덕한	윤지용	이명환	이영호	이준숙	임병찬	전관수	정승민	정훈	진소영	최신애	하주희	홍혜정
양동춘	우상국	윤지원	이무연	이영환	이준용	임상호	전미라	정승봉	정희원	진영주	최영익	하준목	황경원
양상섭	우연주	윤진호	이문정	이옥부	이준혁	임석준	전민경	정연봉	제갈진우	진윤달	최영주	하현주	황규홍
양신우	우은정	윤찬수	이문희	이용국	이준희	임소연	전상학	정영균	조경근	진재윤	최영진	한경문	황기식
양재성	우진희	윤창민	이민섭	이용원	이중헌	임영희	전선위	정영수	조규판	진종길	최영호	한경훈	황덕기
양재호	원동화	윤태영	이민원	이용은	이지나	임옥근	전성욱	정영진	조기영	진주한	최용문	한덕희	황명균
양주순	위난구	윤해진	이민준	이용희	이지연	임윤경	전성웅	정영현	조동길	진태훈	최용수	한동국	황보한
양준위	위순선	윤현우	이병선	이우석	이지욱	임재환	전성현	정옥재	조동석	차경천	최우빈	한세억	황부상
양혜리	유경규	은정인	이보경	이원구	이지원	임정식	전수민	정우진	조문형	차동환	최우석	한승호	황선락
어주영	유경탁	이강배	이보람	이원빈	이지혜	임지아	전순덕	정원빈	조민제	차병철	최우용	한영림	황선영
엄성혜	유길준	이강욱	이상봉	이원호	이진	임지현	전아영	정유태	조범근	차서현	최유준	한종원	황성원
엄수정	유성호	이경민	이상엽	이원희	이진걸	임지혜	전언찬	정윤정	조상호	차세림	최익준	한준성	황성호
에비엔터테인먼트	유수영	이경열	이상완	이윤경	이진규	임지홍	전용기	정의제	조석봉	차윤석	최일규	한진섭	황영식
여승현	유숙경	이경용	이상용	이은숙	이진아	임진규	전재혁	정재경	조성식	차윤숙	최임근	한현석	황영정
여태규	유승진	이경운	이상원	이은영	이진태	임현석	전정순	정재민	조숙희	차재용	최재억	함정임	황영현
여호근	유승희	이경태	이상준	이은임	이진호	임형규	전찬권	정재선	조슬기	차재윤	최재영	허경행	황욱연
연진흙	유재룡	이경학	이상진	이은정	이찬연	임형준	전찬민	정재현	조아라	차종문	최재호	허남인	황원주
염정국	유재열	이경환	이서윤	이은주	이창경	임혜연	전효정	정재현	조애진	차현찬	최정현	허남용	황인성
염창홍	유재욱	이경희	이서정	이은지	이창수	임홍석	전효철	정재호	조양흙	채석용	최정호	허명숙	황자영
오민홍	유정욱	이고은	이석용	이익선	이창훈	장기철	정강재	정종혁	조영정	채승훈	최정훈	허성란	황재용
오선문	유채은	이광식	이선민	이인용	이철오	장기현	정경미	정종희	조완섭	채종덕	최종국	허영민	황재윤
오성배	유현우	이국환	이선우	이일성	이철우	장명수	정경환	정준식	조용복	천상명	최지수	허영호	황정후
오성용	유형욱	이권희	이선주	이장욱	이태광	장문재	정규식	정준영	조용재	천재림	최창윤	허재복	황지연
오세경	유호재	이귀현	이선하	이장호	이평세	장미	정기욱	정지수	조우숙	천정빈	최창현	허정	황지영
오세량	윤갑식	이기성	이선희	이재동	이필우	장민우	정남기	정진아	조유란	최광호	최한별	허종문	황지현
오소라	윤경규	이기혁	이성구	이재성	이학기	장병일	정다형	정진용	조장우	최구진	최현석	허준	황희정
오수연	윤금주	이기훈	이성숙	이재윤	이혜강	장보고	정달식	정진웅	조재현	최규환	최현중	허진혁	
오승현	윤대원	이나윤	이성호	이재은	이해우	장선희	정대성	정진희	조정호	최금화	최현태	허창환	
오승환	윤만희	이난희	이소연	이재현	이해인	장성혁	정득현	정찬식	조종현	최기원	최형림	허태회	
오영란	윤미	이남경	이수민	이재형	이현	장세훈	정무섭	정찬중	조종원	최기혁	최형열	허형록	
오영훈	윤민수	이다인	이수호	이재훈	이현섭	장소라	정미숙	정창석	조철기	최동원	최혜경	허혜숙	
오윤석	윤별	이대명	이승엽	이정관	이현수	장소영	정민	정충훈	조현국	최미숙	최호림	현수빈	
오응수	윤별아	이대성	이승용	이정규	이현주	장승권	정민석	정태호	조현아	최미옥	최호석	현안나	
오인석	윤상우	이대승	이승욱	이정만	이현호	장시영	정민준	정해영	조현준	최민아	최홍규	현연수	
오임숙	윤상일	이덕영	이승재	이정은	이현희	장애은	정민호	정해용	조형열	최민철	최희선	현창욱	
오재환	윤상현	이도경	이승태	이정재	이혜민	장유리	정병수	정현식	조혜정	최병열	추상욱	홍상혁	
오주성	윤성수	이도관	이승현	이정화	이혜숙	장윤창	정보윤	정현욱	조홍률	최병욱	탁규만	홍서영	
오지영	윤성욱	이도현	이승형	이정훈	이혜원	장재희	정봉석	정현구	주나안	최병일	표용희	홍성용	
오진환	윤세련	이도환	이승희	이종민	이호재	장정표	정봉식	정현수	주석민	최보훈	하고운	홍순권	
오창일	윤아영	이동규	이시훈	이종서	이호진	장정환	정석진	정현우	주성식	최봉석	하기영	홍순환	
오형진	윤영준	이동명	이신영	이종학	이홍환	장준봉	정선미	정현욱	주인석	최상윤	하민호	홍승권	
오홍민	윤원용	이동숙	이아희	이종호	이흥재	장지환	정성규	정현정	주인숙	최서현	하상현	홍영습	
옥민	윤은기	이동언	이애경	이종화	이희성	장해나	정성문	정현진	주재현	최석열	하승태	홍용석	
옥순상	윤은주	이동준	이양복	이주성	이희원	장현정	정성욱	정호광	주차든	최성문	하승훈	홍지영	
왕민	윤인식	이동진	이영근	이주영	이희정	장환빈	정성원	정호균	지강이	최성수	하장현	홍지우	
왕승민	윤인한	이동철	이영민	이주원	인정란	전경수	정소연	정호원	지선자	최수호	하정민	홍지원	
왕카이	윤정환	이맹교	이영석	이주현	임미경	전계훈	정수진	정효목	진병래	최승환	하정훈	홍현두	

HIGHLIGHT

Dong-A
V-log

동아인의 리얼 캠퍼스 브이로그



1 열정 가득, 동아다운 시간



▶ 캠퍼스를 가득 채운 봄축제, 대동제 브이로그

#축제 #대동제 #피크닉 #뉴턴공원
#이창섭 #yb #편치 #윤하 #기리보이
#라인업 실화?



▶ 에너지 가득했던 동아리 박람회 현장으로~

#동아리 박람회 #승학캠퍼스
#36개 부스 #73개 동아리
#동아리 체험



▶ 동아대학교와 불꽃야구의 대격돌!

#불꽃파이터즈 #생중계 #7월 20일
#고척스카이돔
#여름보다 뜨거운 인기



2 캠퍼스 라이프 업그레이드!



교환학생이 들려주는 생생한 영국 생활

#교환학생꿀팁 #영어권 #영미학과
#어학연수 #영국 #아셈듀오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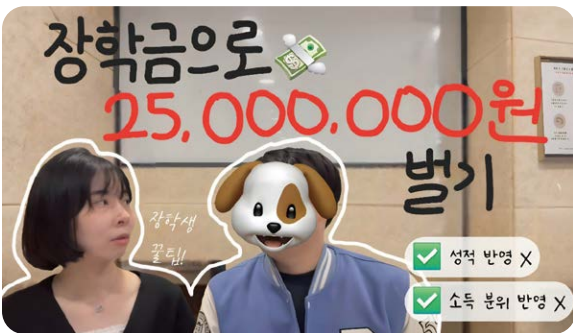


동아대 학생들만 탈 수 있는 택시가 있다?

#동아택시 #어플 다운로드 필수
#승학캠퍼스 #전날 예약 가능



3 동아인을 위한 꿀팁 대방출



동아대 장학금 전부 알려드릴

#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꿀팁 대방출



우리 동네 안심 부동산 정보 박스! '오끼씨'

#자취생 주목 #안심자취
#전세정보가 한눈에 #어플
#오지라퍼 #부민캠퍼스



동아 DAU:M

교육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연구	미래대응 연구역량 확보
산학협력	L2M 가치 창출
대학경영	DAU네트워크 가치 창조
글로벌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 정립
DK	지역공유/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현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